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장편소설이라는 양식과 젠더

박진숙*

차례

1. 서론
2. 글쓰기 장(場)과 근대 장편소설 양식
 - 2.1. 언문일치체와 여성의 문장, 여류 작가의 문학
 - 2.2. 연설, 편지, 기행문과 장편소설 양식
3. 소설 속 독자의 출현과 장편소설의 젠더
 - 3.1. 소설 속 인물로서 (애)독자의 출현
 - 3.2. 여성 독자와 신문연재소설의 젠더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장편소설이라는 양식과 젠더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문학사의 경우 중요한 장편소설들은 거의 신문에 연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통속성을 띠고 신문에 연재된 장편소설로서, 특히 여성 애독자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장편소설 속에서는 여성 애독자가 편지, 연설, 기행문이라는 장르의 속성과 결부되면서 표준어로서의 언문일치체를 규범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는 신문연재소설이라는 대중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소설 속에 설정된 여성 애독자는 내포독자와 실제 독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장편소설의 젠더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독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추동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근대문학에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조교수

서 장편소설이라는 양식은 ‘독자’라는 매개항을 거쳐 젠더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핵심어 : 여성 애독자, 신문연재소설, 장편소설, 젠더, 편지, 연설, 기행문, 언문일치

1. 서론

본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장편소설이라는 양식과 젠더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장편소설은, 김남천의 분류¹⁾에 근거하면 대체로 2, 3항목으로 제시된 두 가지 유형의 소설로서, 통속성을 띠는 신문연재 장편소설들이다. 1930년대 후반 들어 장편소설의 통속화 문제와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논의가 이원조, 김남천, 최재서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신문연재 장편소설은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고찰대상이었다. 특히 한국 문학사의 경우 중요한 장편소설들은 거의 신문에 연재되었기 때문에 장편소설이라는 양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문연재라는 조건을 도외시할 수 없다. 본 논문이 대상으로 삼는 텍스트가 주로 1930년대 후반 신문연재 장편소설이긴 하지만, 1930년대 후반 장편소설의 통속화라는 특징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1) 김남천, 『장편소설계』, 『조선문예연감』 1939, 정호웅·손정수 엮음, 『김남천전집』 1, 박이정, 2000, 455~456쪽.

김남천은 이 글에서 1. 순전한 통속소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 2. 순수한 통속소설은 아니라고, 작자 내지는 일부의 평가, 독자에 의하여 생각되어 왔음에 불구하고 장편소설 논의의 분석과 결론에 비추어, 그의 통속성이 명확히 드러난 것, 3. 통속성의 유희 앞에서 순문학을 완강히 주장하기 곤란한 것 4. 아직도 순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5. 1항에 넣어도 무방하겠으나 그곳에조차 넣기 곤란한 것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사에서 이 소설들은 통속화라는 한계를 가진 것으로 단순히 치부되어 작가의 세계관이 타락한 결과 쓰여지거나, 혹은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방편으로 쓰여진 것으로 주로 인식되어 왔다. 그 결과 이 소설들이 지니고 있는 양식적 특성이나 의미에 대한 천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속성을 띠면서 신문에 연재된 장편소설의 양식²⁾적 특성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검토하려고 한다.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작품들이 호명된 이유는 근대적 글쓰기 장(場)의 배치가 양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또 이를 통해 젠더와 양식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근대적 글쓰기 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연설, 편지, 기행문 등이 독자 특히 여성 독자와 맺고 있는 상관관계, 그리고 그 장르가 각각 언문일치와 맺고 있는 상관성이 장편소설이라는 양식 속에 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남천은 “신문소설의 비결은 가정 내의 부인 독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상식이고 또 과거의 성공한 신문 소설가는 모두 이러한 방법을 썼다”³⁾고 하며 자신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그를 전작 장편소설을 쓰도록 추동한 힘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김남천이 위 분류에서 통속성과 순수성을 구분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통속성을 ‘장편소설이 갖고 있는 모든 모순, 분열, 離乖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초극할 방향에서 노력하지 않고, 출판 기관의 상업주의에 영합하여, 그대로 안이한 해결방법으로 몸을 던진 것, 그리하여 흥미 본위, 우연과 감상성의 남용, 구성의 기상천외, 묘사의 불성실, 인물 설정의 유형화 등등에로 가 버린 것’이라고 잠

2) 양식 개념에 대해서는 박헌호의 『식민지 근대성과 소설의 양식』(소명출판, 2004) 제1장 한국 근대소설사 연구의 논의 참조.

3) 『좌담: 신문소설과 작가의 태도』, 『삼천리』, 1940. 4, 125쪽.

정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남천의 위 진술에 근거하면서 통속화와 신문연재소설,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 글쓰기의 장(場)과 ‘독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이태준과 박태원의 장편소설에는 소설가 혹은 평론가와 그의 ‘독자’를 자처하는 여성인물이 소설 속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통속화된 신문연재소설이 ‘(애)독자’를 장편소설이라는 양식으로 호출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이 장편소설들 속에 연설, 편지, 기행구조가 서사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연설, 편지, 기행구조가 선택되는지를 일제 식민지 시대 글쓰기 장의 역동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1910년대 이후 형성되면서 분화하는 글쓰기 장과 작가-텍스트-독자라는 관계망 속에서 장편소설의 양식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장편소설의 이러한 양식화 과정 속에서 젠더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 역시 이 논문의 목표이다.

한국 문학사에서 여성의 읽고 쓰기는 남성 작가와 문단, 미디어에 의해 추동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 독자의 역할이나 지향 역시 남성 작가의 작품에 구현되는 ‘독자’의 모습에 투영되면서 또 이를 통해 제시되어 왔다. 장편소설에 일기, 편지, 연설 형식이 들어 있는 것도 여성을 계몽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글쓰기 장을 적극 활용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가설이다. 여성이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어떠한 주체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제까지의 논의는 주로 여성 작가의 글쓰기를 검토하거나, 여성 작가의 작품 속에서 여성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여성의 자기 구성 과정은 어떠한가를 주로 검토해 왔으며, 식민 담론·모성담론 중심으로 여성이 어떻게 타자화되었는가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 작가가 어떠한 글쓰기 장에 처해 있었는지, 여성 작가이지만 한편으로는 형성되고 있는

독자이기도 했던 그들을, 여성 작가의 텍스트를 배제한 채 남성 작가의 담론과 그를 둘러싼 글쓰기 장의 역동성을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소설은 이태준·박태원·엄홍섭의 신문연재소설로 소설 속에 '(애)독자'가 등장하는 텍스트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 논의는 한국 문학사에서 통속성을 띤 신문연재소설을 통해 장편소설이라는 양식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도록 하여, 장편소설·애독자·젠더라는 세 항이 어떤 도식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2. 글쓰기 장과 근대 장편소설 양식

2.1. 언문일치체와 여성의 문장, 여류 작가의 문학

박태원은 「표현·묘사·기교-창작여록」(『조선중앙일보』 1934.12.17-31.)에서 '여인의 회화' '여류 작가'에 대해, '우리말에도 여성의 말 혹은 여성적인 말이 있으나, 아주 빈약해서 창작의 실제에 있어 여인의 회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이 된다'고 한다. 그는 또 여인의 회화를 표현하기에 어조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남자들의 말이 직선적인 것에 비해, 여자들의 말은 곡선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빈정거림과 같은 저열한 감정도 여성들이 풍부히 가지고 있는 바여서 빈정거리는 말은 그대로 여성의 말이며, 억양의 차이로 표현할 수 있는 반말도 여인의 회화에서는 흔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여인의 대화를 취급함에 있어 능숙하려면,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여인들을, 여인들의 심리를, 여인들의 심정의 기미를, 속 깊이 파헤치고 들어가 확실히 얻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박태원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창조한 여성

인물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이다. 박태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성은 직선적인 말보다는 곡선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빈정거림·저열함 등을 바로 ‘대화’에 반영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특징이 드러나는 표현이 ‘대화’ 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류 작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도 한다.

조선문단은 한 사람의 여류작가도 가지고 있지 않다.-이렇게 말하면, 혹 분노할 이가 있을지도 모르나,

가령,

‘최정희’-하면 ‘최정희’, ‘백신애’-하면 ‘백신애’. 아무튼 좋다. 여하튼 조선의 ‘여류작가’들은, 이제까지 ‘여류작가다운’ 한결음 더 나가서 ‘여류작가가 아니고는 못 쓸’ 그러한 한 편의 작품도 발표하지 않았다.

박화성 씨는 현 문단에 있어, 가장 활약하는 작가의 한 명이다. 그러나 그의 모든 작품은, 그 작가가 여성됨을 주장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작가 박화성 씨에게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여기 있다.

이 점에 있어, 나는 감히, 조선 문단이 한 명의 여류작가도 가지고 있지 않다.-그렇게 말하는 것이다.⁴⁾

박태원이 위에서 말하고 있는 ‘여류작가가 아니고는 못 쓸’ 그러한 작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여류작가가 아니고는 못할 묘사’의 예로 그는 영국의 여류 작가 캐서린 맨스필드의 「차 한잔」을 직접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번역을 통해 박태원은 여류 작가 캐서린 맨스필드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번역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언문일치체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다.

4) 박태원, 「표현·묘사·기교-창작여록」, 『조선중앙일보』 1934.12.17-31, 류보선 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깊은샘, 2005, 260~261쪽.

박태원이 언급하고 있는 ‘여성의 말’ 혹은 ‘여류 작가가 아니고는 못할 묘사’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기로 하자. 당시의 조선 문단이 일본 문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일본에서 출간된 <문장독본>류가 조선에도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문장독본>류의 수업자는 주로 여성이었다⁵⁾고 한다. 문장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문장이 다르다’거나 ‘남성의 문장은 전달의 문장, 여성의 문장은 표현의 문장⁶⁾’이라고 하는 생각이 암암리에 <문장독본>류에 나타나 있다는 것과 함께, “‘여자니까’라는 연약함, 체념과 과장 속에 안주해서는 여성의 문장의 특색을 드러낼 수 없으며, 진실로 여성의 특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비로소 진실한 한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문장이 쓰여질 수 있다⁷⁾”고 했던 牧野武夫의 『女性文章讀本：新らしい女子手紙文藏』(東京：中央公論社, 1935.)을 동시에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문장이 감각적으로 뛰어난 것은 사실이거니와, 그렇다고 이를 내세워서 쓰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성으로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쓴 문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 여성으로서의 사물의 존재 방식·사고방식·방법론, 이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엄연히 여성의 문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은 어떠한다는 규정은, 창작에서도 여성의 심리나 내면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나 고려하게 될 특성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牧野武夫가 강조하고자 했던 여성의 문장이란 결과적으로는 여성임을 의식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특성이 저절로 드러나도록 쓰는 과정에서

5) 齊藤美奈子, 『文章讀本さん江』, 東京: 筑摩書房, 2002, 112쪽.

6) 위의 책, 112~115쪽.

7) 牧野武夫, 『女性文章讀本：新らしい女子手紙文藏』, 東京：中央公論社, 1935, 16~28쪽. 이 책이 『부인공론』 신년호 부록이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언문일치체와 여성의 문장은 일치하면서도 균열을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근대 문장에서 대화문과 지문의 분리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⁸⁾ 특히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으로 표준어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성 작가들의 언문일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편지에서 자신만의 내밀한 말로 자기를 표현하도록 추동되어 말 그대로 기록하는 언문일치 초창기 형태가 있었다고 한다면, 표준어 제정은 지역·신분·언어를 타자화하기 때문에 표준어로 언문일치를 할 것이 종용되면서 결국 여성 자신의 내밀한 말은 대사 속으로 갇혀 표준어로 규정된 말로 사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균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후 장편소설에 반영되어 대사에서는 표준어로서의 언문일치 이전 각 개인의 특성이 반영되는 방식이 잔존하게 되었고, 지문에서는 표준어화하면서 국가 혹은 남성에게 의해 젠더 담론으로 타자화되었던 것이다.

박태원이 말한 여성의 말 혹은 문장이란 주로 대화문 안에서 인물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것이고 ‘박화성에게 느끼는 불만’이라고 했을 때는 박화성이 다른 남성 작가들과 같은 프로문학적 성향을 보이려고 애써 창작할 것이 아니라, 일 개인 박화성이라는 여성과 현대의 문체의식에 집중하여 드러나게 될 문체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음 김남천의 언급을 보면 여류 작가의 당대적 상황⁹⁾에 대한 진단과 동시에 여류작가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8) 히라타 유미, 임경화 역, 『여성 표현의 일본 근대사』, 소명출판, 2008, 191쪽. 이태준이 『문장강화』에서 대화문에서는 인물의 특징적인 부분이 드러나도록 사투리를 허용하지만, 지문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맥락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김양선, 「여성 작가를 둘러싼 공적 담론의 두 양식」, 『민족문화사 연구』 26, 민족문화사학회, 2004 참조

우리 문단이 저조에 빠져 있는 무엇보다도 가장 뚜렷한 특징을 나는 그 산출되는 작품의 수량이나 또는 작가의 질을 하나하나 조사해 보는 대신, 부인 작가들의 작품이 하나도 우리 문학의 중심 과제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건 다시 말하면, 부인 작가들이 하나로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현대 문학과 관계있고 교섭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인이면 부인으로서 현대 문학이 당연히 취급해야 할 문제의 가운데로 무엇이든 간에 교섭점을 쳐들어 갖고 나와야 할 것이 아닌가.**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나는 부인 작가들의 글에서 그것을 찾아 볼 수 없음이 늘 섭섭하였다. 그것은 여류 문학이 사교력이나 생활력, 그러므로 문학하는 의의를 아직도 정신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무엇보다도 큰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인되시는 분으로 문학에 종사하려거든 아예 당초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단단한 각오를 하고 나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세상은 언제까지나 여성이라고 특등석을 준비해 올려 앉히지는 않는다.…… 문단은 금후 그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피차에 불쾌한 일이다. 적어도 문학의 권내에서만은 여성이라고 우선권을 주거나, 또 여자를 애완물처럼 취급하거나, 그래서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것은 첫째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남존여비 사상의 치사스러운 고집이다. **부인 작가는 문학과 단판 씨름을 할 만한 명예와 야심과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 없이는 현대와 문학적으로 교섭할 날은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¹⁰⁾

여류문학에 요구된 것은 현대문학과와의 적극적인 교섭의 문제이다. 여성이라는 것에 안주하거나 특권을 누리려 하지 말고 당대 문학의 중심 과제에 교섭하기를 권하는 김남천의 목소리는 박태원이 요구하는 ‘박화성에게 느끼는 불만’과 일정한 부분에서는 연결되어 있다. 현대문학의 중심 과제에 대해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를 어

10) 김남천, 『여류문학 저조의 문제』, 『여성』 1939. 6.

면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말해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식민지 시대 여성 작가들은 언문일치의 진행 과정 속에서 자신의 글을 표준어로 일치시켜가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했으며, 문단에 대해서도 남성이 아닌 여성 작가로서 현대와 교섭하여 그 문제의식을 예각화하기를 두루 중용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독특한 문체를 형성해야 했으며 한편으로는 문단 내의 중요한 문제에 여성의 입장에서 천착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받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이상적인 담론에만 그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여성 독자에게 요구되는 담론은 이보다 한 차원 낮은 곳에서 대중 독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서조차 가능하지 않은 어떤 요구를 소설 속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2.2. 연설, 편지, 기행문과 장편소설 양식

이광수의 『무정』에는 함교장의 연설을 듣고 감화의 눈물을 보이는 기생 율화가 나온다. 이태준의 장편소설 『불멸의 함성』에서는 미국에 유학한 박두영의 연설과 이 연설을 울면서 듣는 청중이 그려지고 있다. 이태준의 소설에서는 연설이 직접적으로 그려지기보다는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설은 조선기독교 청년회의 지사들이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태도를 보고 즉석에서 박두영이 한 연설이다.

그는 절반은 울면서 이야기하였다. 나중에 그가 가장 힘들여 이야기한 것은 조선 민족의 전통에 관해서였다. 조선 사람에게선 대에서 받아온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그런데 그 중에는

꼭 한 가지 아름다울 수 없는 전통도 섞여 있는데 이 아름다울 수 없는 한 개의 전통은 아름다운 여러 개의 전통을 죄 잡아먹고도 남는 무서운 것으로 그것은 즉 당파싸움하는 버릇이라 하였다.

우리끼리 미워하고 우리끼리 훼방 놓는 것이라 하였다. 어린 학생들은 못 알아들었으나 큰 학생들과 이보상 씨와 김학감은 울면서 들었다.

두영이가 연단에서 내려서자 박수가 끝나기 바쁘게 여러 남녀 학생들이 두영에게로 몰려왔다. 그들은 악수를 청하고 치하하고 그리고 사인을 청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차를 마실 시간이 없겠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¹¹⁾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울면서 연설을 하고, 울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청중의 태도에 있다. ‘연설’이라는 장르는 1910년대 글쓰기 장(場)에서 보았을 때 압도적인 장르였으나 1920년대에 이르러 그 힘이 약화되기에 이른다. 자립성은 잃었으나 장편소설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며 독자를 감동으로 이끄는 소임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연설은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와 그것을 읽는 독자와의 관계에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작품이 독자에게 요구하는 감동 혹은 공감의 정서적 감응이 여기서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문학적 감각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 기능한다.’¹²⁾ 이광수의 『무정』에서 함교장의 연설이 월화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이 함교장의 연설이 지닌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것처럼, 독자를 소설에 결박시켜 정서적 감응의 자리로 안내한다는 점에서 신문에 연재되던 장편소설에서 연설은 더할 나위 없는 장치였던 것이다.

언문일치체가 연설이라는 구어의 장에서 더욱 명확하게 실현된다고 한다면 편지 역시 편지를 쓰는 사람의 심경과 말투를 가장 적나라하게

11) 이태준, 『불멸의 함성』, 깊은샘, 1988, 382~383쪽.

12) 권용선, 『1910년대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2004, 13쪽.

드러내는 양식으로 언문일치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물론 표준어로의 언문일치 이후 정리되기는 하겠지만, 이태준의 장편소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설적 구성요소는 바로 편지이다. 특히 『불멸의 함성』에서 원옥과 두영의 편지, 천오상의 편지, 정길과 두영의 편지 등 서울, 인천 혹은 서울, 평양, 미국 등 공간적 거리를 전제로 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엮어 나가는 서사의 가장 주된 요소는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편지는 인물들의 솔직한 내면을 고백하기도 하고, 위장하기도 하며 대화가 다 이루어내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우연성 남발과 오해를 일으키는 소지로 활용되는 것도 편지이다.

편지는 독자가 소설의 등장인물보다도 편지의 사적인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편이 되어 독자의 사적인 영역 구축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독자의 읽기의 영역을 확보해준다. 독자의 사적인 영역 구축은 독자로 하여금 주체를 형성하게 만드는 자극제 역할을 하며 이는 연재 소설이라는 장르의 속성과 결부하여 파생되는 내포독자의 의미이다. 편지라는 형식을 소설 속 사건 전개 장치로 활용하면서 독자를 연루시키는 것이다.

독서는 독자를 사생활과 비밀을 몰래 훑쳐볼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한다. 소설 속 사적인 공간이라는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독자들은 편지 속에 등장한 주인공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사적 영역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기를 멈춤으로써만 효과를 발휘한다. 이태준이 장편소설에서 서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이 사용했던 편지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소설 텍스트에 연루된 독자에게 편지의 사적인 영역을 공유하게 하는 쾌감을 느끼게 하면서 그 독자 자신이 내면을 형성하게 하는 힘으로도 작용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이태준은 편지 형식을 제도화하는 한편, 연애와 여성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³⁾ 1920년대 연애편지에 열광하

던 여성들에게 신문연재소설 안에서 또 편지를 활용함으로써, 편지라는 문체 속에 그들을 가두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문연재소설의 또 하나의 서사적 장치는 ‘여행’이다. 여행은 글쓰기 장 속에서 보자면, 기행문의 영향으로 또 선박, 기차 등 교통수단의 근대화로 인해 만들어진 소설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신문연재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행의 장소 혹은 유형에 있다. 이태준, 박태원, 엄홍섭 등의 장편소설에서 여행은 주로 금강산, 원산 해수욕장, 온천이다. 독자들은 이 신문연재소설을 읽으며, 이광수, 최남선 등의 기행문을 통해 이미 익숙한 장소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셈이다.¹⁴⁾ 엄홍섭의 『행복』(『매일신보』, 1939)은 금강산 탐승단들의 행렬과 함께 금강산 등산에 나선 김성철·김성숙 남매가 화가 손보경을 위기에서 구해주면서 펼쳐지는 연애담이다. 금강산의 장안사, 마하연, 진주담 등 구체적인 풍경과 함께 마치 탐승단이 기행을 하듯 전개된다. 역시 걸은 여학생과 기자, 사업가 등의 연애담이지만, 그 안에는 1930년대 후반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이태준의 『화관』의 동욱은 영어 교원이 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다 석왕사, 삼방협, 원산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배일현, 황재하, 박인철 등을 만나게 되고 생각 끝에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하는 과정으로 그려져 있다. 여자 주인공의 금강산 기행, 원산 기행, 성추행 위기 혹은 새로운 애정관계의 탄생 등 금강산, 원산 등의 장소와

13) 박진숙, 『이태준 문학 연구-텍스트와 내포독자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3.8, 116~117쪽.

14) 현진건이 『몽롱한 기억』(『백조』 2, 1922.2)에서 이광수의 글(『오도답파여행』)을 읽고 동경한 나머지 해운대에 갔다는 내용을 써놓고 있으며, 김기림(『바다의 환상』)도 『금강산유기』를 포켓에 넣고 금강산을 찾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결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니와 이 내용이 1920년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1930년대에 관광, 여행의 대중화가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장편소설 서사를 추동하는 하나의 축이 되어 있다.

연설, 편지, 기행문은 1910년대 이후 조선의 글쓰기 장을 구성해 온 주요 장르이다. 이 장르는 다시 통속 장편소설이라는 또 다른 장르 안으로 편입되어 하나의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애)독자’라는 항목이다. 연설(문)은 정서적 감응 대상을 앞에 두고, 편지는 받는 사람을 상정하며, 기행문은 독자의 여행 혹은 순례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글쓰기이다. 이들 장르는 소설 속에서 ‘여성 (애)독자’를 만나 통속 장편소설이라고 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구성해 낸다. 신문 연재소설은 독자를 다음과 같이 직접 겨냥하고 쫓아간다. 이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연설, 편지, 기행문은 독자를 끌어들이는 하나의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신문소설은, 날마다 일정한 분량으로 끊되 단일화한 내용이 강한 인상으로 24시간 동안 여러 가지의 독자 머릿속에 또렷이 남게 할 것, 그러면서 다음 회를 마음이 졸여 기다리게 하는 매력을 남길 것, 물건 싸운 신문지에서 중간의 어느 한 회치를 읽고라도 그 소설 때문에 곧 그 신문의 새 독자가 되고 말게 할 것, 그러니까 매회 매회가 알기 쉽고, 새롭기는 첫머리 같고, 아기자기하고 다음 회엔 무슨 결말이 날 것 같기는 꼬트머리 같도록 할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신문소설의 중요한 조건들일 것이다.¹⁵⁾

3. 소설 속 독자의 출현과 장편소설의 젠더

3.1. 소설 속 인물로서 (애)독자의 출현

일본의 경우 초기의 소신문에는 ‘신문을 읽는 여자’가 실제로, 혹은 이

15) 이태준, 『소설독본』, 『여성』, 1938.7.

상적인 모습으로 개화의 은택과 함께 점철되기 시작한다.¹⁶⁾ 에도 시대의 사례본이나 닌조본에는 독자를 등장시키는 수법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는 출판 산업에 있어서 독자 생산의 전략이며 또 작가와 독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의 탄생을 촉구했다고도 볼 수 있다.¹⁷⁾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읽는 독자를 등장시키는, 이야기의 차이니즈 박스적인(상자 속에서 상자 꺼내기) 구조는 이야기의 역사상 초기부터 보이는 장치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야기를 다른 담론 장르와 구별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¹⁸⁾

일본의 위와 같은 상황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한국 문학사에서 소설 속에 ‘독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텍스트는 이태준의 단편소설 『까마귀』, 『석양』, 『장마』¹⁹⁾를 비롯하여 장편소설 엄홍섭의 『행복』, 박태원의 『여인정장』 등을 들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독자’는 소설 속 인물인 작가나 평론가의 ‘독자’ 혹은 ‘애독자’로 등장하여, 작가의 거울 역할을 하거나 작가에게 비판을 가하기도 하는 ‘문명 비평적인 시점을 가진 독자’²⁰⁾가 되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들에서 ‘(애)독자’임을 자처하는 인물은 모두 여성이다. 그 대상은 물론 남성 작가이거나 남성 평론가이다. 이러한 소설을 쓴 작가 역시 남성이다.

신문소설의 독자가 대체로 여학생과 가정부인으로 구성되며, 여성 독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책 읽는 여성이 새롭게 구축된 근대 사적 영역의 한 주체라는 것, 식민지 시대 전반적인 교육의 위축과는 달리 여

16) 히라타 유미, 앞의 책, 21쪽.

17) 가메이 히데오(龜井秀雄), 김춘미 역, 『메이지 문학사』, 고려대 출판부, 2006, 78쪽.

18) 위의 책, 65쪽.

19) 이에 대해서는 박진숙의 『이태준의 <까마귀>와 인공적 글쓰기』(『현대소설연구』 16, 2002.6)와 『이태준 문학연구-텍스트와 내포독자를 중심으로』(서울대 박사논문, 2003.8, 43~52쪽) 참조.

20) 가메이 히데오, 앞의 책, 86쪽.

성 교육은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여자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1924)에서 한문의 비중보다는 조선어 사용 비중을 남학생용 교재보다 훨씬 높여 편찬했다는 점, 그리하여 식민지 조선 문학이 여성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운위되는 것이 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²¹⁾ 등과 같은 글쓰기 장의 사회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여성 독자’를 소설 속에 설정한 남성 작가의 글쓰기 전략에 대해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²²⁾

여기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텍스트는 박태원의 『여인성장』과 엄홍섭의 『행복』²³⁾이다. 특히 이 두 소설에는 여성 애독자를 자처하는 인물이 두 명 이상 등장한다. 먼저 소설 속 ‘여성 독자’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박태원의 『여인성장』은 소설가 김철수가 『명량한 전망』이라는 소설을 쓰기까지의 과정이 하나의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철수의 애독자는 철수의 옛 애인 숙자, 숙자의 시누이 숙경, 철수의 은사의 딸인 순영 등 세 명이다. 소설가 김철수의 연인이었으나 숙경 오빠의 겁탈로 인한 임신으로 숙경 오빠와 결혼하는 숙자는 결혼할 때 『부인공론』을 가지고 온 것으로 서술되며, 남편의 서재에서 김동인의 『감자』·이태준의 『까마귀』·『김철수 단편집』을 확인하며 김철수의 위상을 김동인·이태준과 나란히 하는 비평가적 관점을 취하는 것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김철수를 좋아하게 되는 숙경은 김철수가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러 방문한다고 하자 김철수의 <근감수제>에 나와 있는 내용 ‘조선복과 퍼머넌트는 안 어울린다’는 구절을 떠올려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으로 직접 그의 생각을 실천해보이기도 한다. 이들 ‘애독자’

21)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339~343쪽.

22) 천정환은 「1920년대 독서회와 ‘사회주의 문화’」(『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문학적 표상』 2, (2008.6.27 발표)라는 발표문 중 ‘사회주의 운동의 젠더와 독서회’라는 절에서 ‘책 읽는 여자’를 바라보는 ‘주의’의 젠더적 의미 또는 독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

23) 엄홍섭의 장편소설 『행복』은 김남천이 통속소설을 분류한 항목 속에 있던 작품이다.

들의 수준은 김철수의 소설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당대 작가들에 대한 비평도 서슴지 않는 수준이다.

박태원의 『여인성장』은 일제 말기 신체제기의 일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다. 애독자와의 연애 관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애국 반상회, 여학생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보도연맹, 국책형 규수에 관한 대화, 금강산행, 편지와 일기의 역할까지 통속적인 연애담으로 이루어진 장편소설의 양식적 특성 모두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애독자 중 한 명인 숙경과의 관계에 주목해 보자. 숙경은 자기 오빠의 부인인 숙자와 자신이 사랑하는 김철수의 관계를 오해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신경으로 도피한다. 숙경의 아버지 최종석은 숙경의 마음을 돌려 조선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금강산 신계사에 가 있는 김철수에게 아들 상호를 보내어 부탁을 한다. 김철수가 ‘지금 대체 어느 때라구 그러는 것이냐, 그렇게 값싼 목숨이면 일찌감치 죽어버려라’라고 했다는 말을 상호로부터 전해 들은 최종석은 그 말의 진의를 파악하고는 숙경에게 이 내용을 전하여 숙경이 돌아오게 한다. 김철수의 격한 말에서 진정을 알아차린 최종석이 딸 숙경에게 그 내용을 전하여 김철수의 진정이 숙경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소설가 김철수는 애독자 최숙경에게 수사법을 사용한 것이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오빠 상호는 간파하지 못한 진의를 아버지 최종석이 파악하여 최숙경에게 전달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소설가 김철수와 애독자 최숙경 사이에 매개자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여성 독자가 어떤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매개자를 통한 수사학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박태원의 『여인성장』에 나오는 애독자 세 명은 나름대로의 교양을 갖춘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숙자는 『부인공론』을 읽는 독자로, 김철수와 좋아하는 사이였으나 상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철수를 떠나는 인물

로, 숙경은 비록 매개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소설가 김철수와 수사학적 소통이 가능한 인물로, 순영은 철수의 도움을 받아 자립했을 뿐 아니라 철수를 좋아하지만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알며 철수의 행복을 쓸쓸히 빌어주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박태원이 ‘나의 예술에 대한 정신과 태도는 오직 나의 작품을 통하여서 독자에게 전달될 것’²⁴⁾이라고 한 이유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애독자들은 작가가 원하는 바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주고 있는 셈이다.

엄홍섭의 『행복』에는 ‘해동공론 기자 김성철이 쓴 논문이고 신문이고 잡지고 간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는 애독자 박원주’와 ‘늘 김성철의 평론을 애독하는 손보경’이 평론가 김성철의 애독자로 등장한다. 김성철의 평론은 대학 졸업 후 철학에 관한 딱딱한 몇 편을 제외하면, <해동공론>이란 대중잡지 편집을 하다가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손쉽게 쓴 극히 통속적이고 계몽적인 연애, 결혼, 이혼 문제 같은 것을 취급한 문화시평이다. 소설의 주 인물은 손보경으로 김성철, 누이 김성숙, 손보경의 오빠 손재호와 손보경에게 학비 보조금을 준 황승일 등을 중심으로 갈등관계가 펼쳐진다. 흥미로운 점은 김성철과 김성숙의 대화이다.

“오빠 현대 청년이면서두 현대 청년이 아니지 뭐유 글썄!”

“왜! 뭇때문에!”

“너무도 연애 문제나 결혼문제에 대해서 귀족적 자존심을 가졌기 때문에 말이유!”

“넌 또 슬며시 연애 문제로 화제를 돌리는구나! 어디 그래 토론 좀 해보자꾸나!”

.....

“왜 귀에 거슬리나? 현모양처주의를 고취하는 오빠의 사상이 너 듣기엔

24) 박태원, 「내 예술에 대한 항변-작품과 비평가의 책임」, 『조선일보』, 1937.10.23.

케케묵었을는지 모르지만 여자의 길은 결국 그 길밖에 더 있니!”²⁵⁾

위 인용문에 나오는 ‘토론 좀 해보자’는 김성철의 발언은 이 소설에서 유난히 인물 간의 대화가 많이 등장하는 방식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화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김성철은 누이에게 일방적으로 현모양처주의의 불가피함을 강좌하고 있다. 소설 후반부의 내용에서 손보경은 김성철을 떠나고자 하나, 김성철이 그의 과거를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귀결되고 손보경은 김성철의 여성관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엄홍섭의 소설 『행복』에서 애독자는 박태원의 소설에서보다 속화된 느낌이 강하다. 이 애독자는 통속적이고 계몽적인 연애, 결혼, 이혼 문제 같은 시평을 읽은 독자로 ‘현모양처주의’를 자신의 사상으로 삼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독자를 양산하는 것이 이와 같은 신문연재소설의 글쓰기 전략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2. 여성 독자와 신문연재소설의 젠더

종합잡지나 문예잡지에는 단편 심경소설을 발표하고, 신문이나 부인잡지에는 통속 장편을 집필한다는 것은 일본이나 조선이나 문단 서식자들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이었던 것 같다.²⁶⁾ 부득이하게 이런 이중적 매문 생활을 해야 했던 문단인들의 가책 역시 조선의 작가 특히 이태준만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고작 애를 써야 신문소설이나 되고……’라며 자조하고 있던 이태준에게 김남천의 다음과 같은 ‘상식적인 도덕의 경계를 어느 정도로 넘느냐 못 넘느냐’ 하는 문제는 통속문학이 되어버릴 것

25) 엄홍섭, 『행복』, 영창서관, 1941, 9~11쪽.

26) 마에다 아이,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 유은경·이은희 역, 이룸, 2003, 203쪽.

인지, 장편소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권역을 결정하는 문제였다고도 할 수 있다.

금일의 신문이 범연한 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은 우견에 의한대 상식 도덕의 입지라고 본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내외 조건이 결정하겠지만 광범한 독자 대중의 범박한 입장이 또한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때문이다. 신문소설은 무엇보다도 이 입장을 싸고서야 전개되어 갈 것이 아닐까. 내지의 신문소설 왕자격인 국지관(菊地寬)이가 무엇보다도 상식 도덕의 대변자라는 것은 시사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단편소설의 작가 이태준 씨와 신문 소설가 이태준 씨는 다수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후자에 있어선 이씨는 완전히 ‘어찌하리까?’(가정란의 답변자는 상식 도덕의 大言人이다)의 담당자이다. 이원조 씨의 『문장』지 5월호의 『상식문학론』은 다분히 이러한 처지를 고려한 것이나 아닐까? 물론 씨에게 있어선 상식은 상식적인 상식이 아니고 건전한 상식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그렇게 되면 ‘상식’은 벌써 ‘양식(良識)’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여하튼 비평적 태도 같은 것을 거쳐서 상식 도덕의 굴레를 돌파할 길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으나 근본적인 문학의 변모가 실행되는 장소는 형식적, 기술적인 곳이기보다는 오히려 **상식적인 도덕의 경계를 어느 정도로 넘느냐 못 넘느냐**의 기점에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통속문학인가, 아닌가도 역시 이런 관점에서 토구할 것은 아닐까?²⁷⁾

이태준의 『성모』에서 안순모는 식민지 근대의 여성 표상으로 기획되어 김상철, 박정현의 연애의 대상이었지만, 미혼모가 되어 출산을 경험하고 박정현과의 이별이라는 고난을 극복하며 위대한 모성을 획득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총후부인으로 거듭난다. 안순모는 ‘안산을 위해서’ ‘태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가며 어머니가 되는 준비를 충실히 하는 ‘독

27) 김남천, 『소설의 당면과제(하)-신문소설의 제문제』, 『조선일보』, 1939.6.25.

자' 안순모이다. 이태준의 장편소설에서는 그의 단편소설 『까마귀』 『석양』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독자를 자처하는 인물이 소설 속에 그려지기 보다는 실용서든 소설이든 어떤 책을 읽은 독자로 설정된다. 『성모』에서 안순모는 책을 통해 근대적 어머니가 되어가는 신여성으로, 김상철의 거듭되는 구애를 뿌리치고 자립적인 여성 즉 어머니라는 주체로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태준은 여성이 민족국가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며, 남성주체는 민족적 위기의 극복을 여성에게 떠맡긴 채 새로운 미래지향적 주체로 정립되는 과정을 『성모』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에서 남성 주체는 전면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여성 주체 구축을 통해서만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²⁸⁾

『청춘무성』에는 성경을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두 여성 인물이 나온다. 고은심과 최득주. 이들은 교사 원치원을 사랑하지만, 원치원이 고은심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최득주의 탈선. 탈선한 이후 최득주의 카페여급생활, 자선사업을 이루기 위해 절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최득주의 변모, 최득주가 원치원의 도움을 받아 재락원을 설립하고 고아와 사생아를 거두는 활동을 하면서 고은심을 교사로 오게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득주는 윤천달의 돈을 훔치는 과정에서 소설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를 떠올릴 줄 아는 '독자'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득주가 '독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보다, 만주기행을 하면서 둘러본 봉천의 동선당을 본따 만든 재락원에 있다. 동선당과 같은 방식으로 고아와 사생아를 받아 입양을 시키기도 하고, 입양되지 않는 아이는 득주가 맡아 재락원에서 키우며 무교회주의의 사상을 실천하는 일, 이것이 이 소설의 핵심이다. 최득주는 원치원이 회

28) 이에 대해서는 박진숙, 『이태준 문학연구-텍스트와 내포독자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3.8, 113~116쪽; 심진경, 『한국문학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6, 191~192쪽 참조

개하라고 하던 권고를 부정하며 카페 여급이 되었다가 카페 여급의 현실에 대해 눈을 뜨며 원치원의 후원으로 재락원을 차릴 수 있었다. 물론 원치원이 금광에 성공한 것이라든지 우연성이 남발되는 부분은 소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이 소설의 의미는 최득주의 회개를 통한 변모와 재락원의 현실화를 통해 무교회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 그 매개가 원치원이 금광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에 있다.²⁹⁾

이태준의 『성모』가 여성 주체 구축을 통해 남성주체를 구성하고자 했던 것, 박태원의 『여인성장』이 숙경의 아버지를 매개로 하여 소설가·독자 관계, 연인 관계를 완성한 것처럼 이태준의 『청춘무성』에서는 원치원의 자금이 매개가 되어 최득주가 꿈을 실현하여 재락원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소설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여성 독자들은, 소설 바깥에 존재하는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동일시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소설 속에 등장한 ‘여성 독자’를 중심으로 장편소설의 젠더적 의미를 살펴본다는 것은, 이야기를 쓰는 여성이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에도 시대의 대중 서적에 여성 독자가 등장하는 것이 여성 독자를 생산하려는 전략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메이지 시대의 이른바 근대문학에 있어서 여성 독자의 묘사는 그 반대로 여성 독자의 감정이입이나 자기 투영을 좌절시켜 버린다는 의미에서 여성 독자의 소외 지향을 내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⁰⁾’고 한 평가는 한국 문학사에서 장편소설에 독자를 등장시키는 수법의 의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 독자를 장편소설에 등장시켜 소설 속 인물의 삶을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여성 독자를 소설 속에서 재현되

29) 박진숙, 『이태준 문학의 종교적 이상주의』, 『작가세계』 2006 겨울.

30) 가메이 히데오, 앞의 책, 93쪽.

는 독자처럼 생산하려는 전략과 함께 새로운 작가-독자 관계를 창출하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남성 작가가 설정한 ‘여성 독자’의 상에 구속되어 소설 바깥에서 소설을 읽는 여성독자가 그 소설 너머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자유로운 주체를 구축한 여성독자의 소외를 불러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통속적인 경향을 띤 신문연재소설, 그 중 이태준, 박태원, 엄홍섭의 장편소설 몇 편을 대상으로 논의를 해 보았다. 대상이 된 텍스트는 ‘(애)독자’를 자처하는 여성 인물이 소설 속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한국 근대문학에서 장편소설이라는 양식이 ‘독자’라는 매개항을 거쳐 젠더를 형성하고 있음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이 양식의 형성에 당대 글쓰기 장에서 독자에게 호응과 감응력이 높았던 연설, 편지, 기행구조가 개입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소설 속에 설정된 여성 애독자는 내포독자와 실제 독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장편소설의 젠더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독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추동하고 있었다.

한국 문학사에서 여성의 읽고 쓰기는 남성 작가와 문단, 미디어에 의해 추동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 독자의 역할이나 지향 역시 남성 작가의 작품에 구현되는 ‘독자’의 모습에 투영되면서 또 이를 통해 제시되어 왔다. 장편소설에 연설, 편지, 기행문 형식이 들어 있는 것도 여성을 계몽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글쓰기 장을 적극 활용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여성은 이러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일정한 주체로 구성되었다. 이 논의는 한국 문학사에서 통속성을 띤 신문연재소설을 통해 장

편소설이라는 양식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대중성을 보다 쉽게 견인해 낼 수 있는 장치로 소설 속에 '(애)독자'를 호출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이 데올로기를 구성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작가의 독자관에 따라 작가가 설정한 것을 넘어서는 경우도 작가가 제시한 것 속에 갇히고 마는 소외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문학사에서 장편소설이 대중성에 기여하는 한 방식으로 연설, 편지, 기행문이라는 장르가 호출된 것도 결국 '독자'와의 감응을 중시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소설 속 애독자의 출현이 이를 더욱 가시화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구성된 젠더는 양치현모론에 입각한 것으로, 또는 텍스트의 빈틈을 이상적으로 채워 줄 수 있는 내포독자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 이상적인 형태는 다시 남성 작가들이 당대에 지녔던 여성관으로 되돌려져, 여류 문학이 형성되어 온 과정이 장편소설이라는 양식과 젠더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규명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류보선 편, 『구보가 아즉 박태원일 때』, 깊은샘, 2005.
 박태원, 「여인성장」, 『매일신보』, 1941.8.1~1942.2.9.
 엄홍섭, 「행복」, 『매일신보』, 영창서관, 1941.
 이태준, 「불멸의 함성」, 『조선중앙일보』 1934.5.15~1935.3.30.
 _____, 「성모」, 『조선중앙일보』, 1935.5.26~1936.1.20.
 _____, 「화관」, 『조선일보』 1937.7.19~12.22.
 _____, 「청춘무성」, 『조선일보』, 1940.3.12~8.11.
 정호웅·손정수 엮음, 『김남천전집』 1, 박이정, 2000.

2. 단행본

- 박현호, 『식민지 근대성과 소설의 양식』, 소명출판, 2004.
 심진경, 『한국문학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6.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가메이 히데오(龜井秀雄), 김춘미 역, 『메이지 문학사』, 고려대 출판부, 2006.
 히라타 유미, 임경화 역, 『여성 표현의 일본 근대사』, 소명출판, 2008, 3-241쪽.
 마에다 아이, 유은경·이은희 역,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 이룸, 2003.
 齊藤美奈子, 『文章讀本さん江』, 東京: 筑摩書房, 2002.
 牧野武夫, 『女性文章讀本: 新らしい女子手紙文藏』, 東京: 中央公論社, 1935.

3. 논문

- 권용선, 「1910년대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2004, 13-49쪽.
 김양선, 「여성 작가를 둘러싼 공적 담론의 두 양식」, 『민족문학사 연구』 26, 민족문학사학회, 2004, 318-346쪽.
 박진숙, 「이태준의 <까마귀>와 인공적인 글쓰기」, 『현대소설연구』 16, 현대소설학회, 2002.6, 241-258쪽.
 _____, 「이태준 문학 연구-텍스트와 내포독자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3.8, 108-119쪽.

_____, 『이태준 문학의 종교적 이상주의』, 『작가세계』, 2006년 겨울, 95-114쪽.
천정환, 『1920년대 독서회와 ‘사회주의 문화’』,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문화·문학적 표상』 2, 2008.6.27(발표문)

Abstract

The mode of novel and gender in Korean modern literature

Park, Jin-sook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gender and novel in Korean modern literature. Most of the important novels i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were serialized in newspapers. I examined the popular novels serialized in newspapers, especially where avid female readers appeared on the scene. In those novels, avid female readers were connected with such genres as letter, speech, travels, as they played the role of standardizing the unific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through the standard language. All this project were achieved through the mass media of newspaper serial.

In that process, the avid female readers in the novels played another role of mediating between implied reader and real reader, exercising a great influence over formation of gender in full-length novels and driving readers to specific direction. My conclusion is that the mode of novel created gender through the medium of 'reader'.

Key words : avid female reader, newspaper serial, novel, gender, letter, speech, travels, unific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21일에 게재 확정되었음.